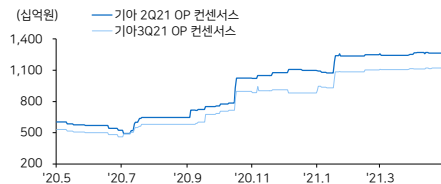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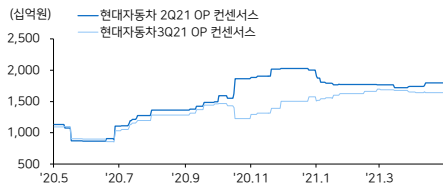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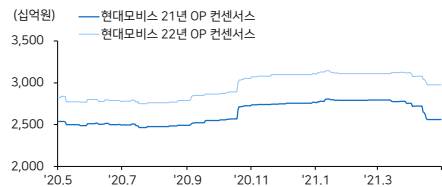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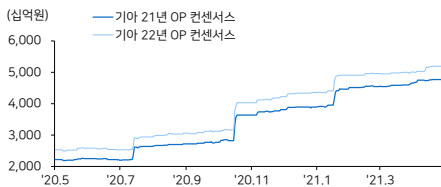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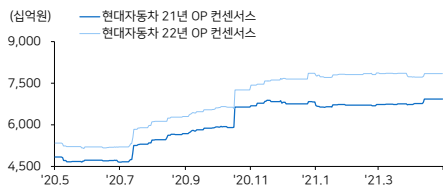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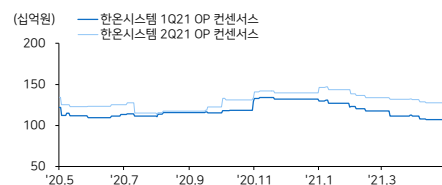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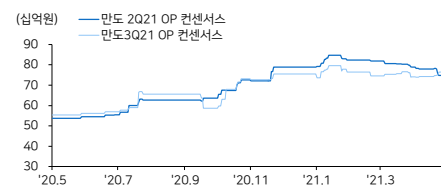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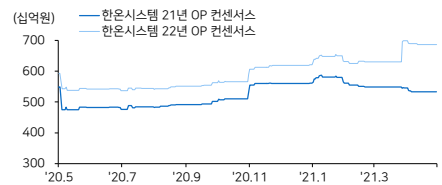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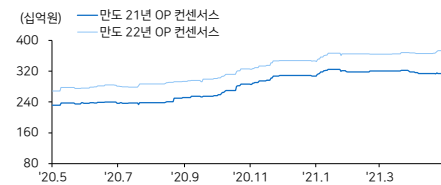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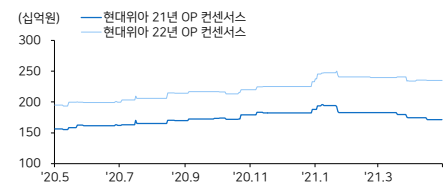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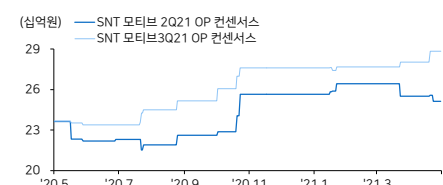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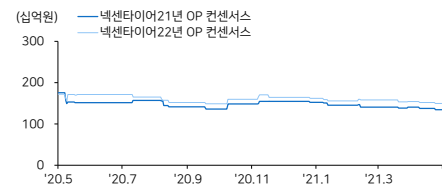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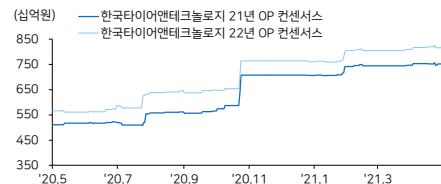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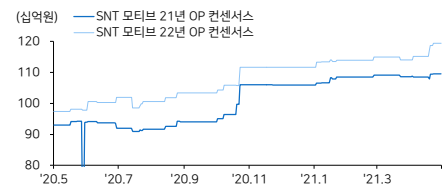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물류로봇 진출 선언한 현대차, 로봇주차 실증사업 돌입 (이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미래성장동력인 로봇기술 확보 일환으로 AGV(무인운반차)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 AGV 로봇은 주로 물류 부문에 활용됐으나 이를 확장시켜 무인주차 로봇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에 착수함.

<https://bit.ly/2R4rFEs>

### 현대차, 내년 '펠리세이드·쏘나타' 페이스리프트... 'GV70 전기차' 예고 (THE GURU)

현대차는 지난 6일 앞으로 출시할 신차 목록을 소개함. 대형 SUV '펠리세이드'와 간판세단 '쏘나타' 출시를 예고했으며, 제네시스 'N' 'GV70' 전기차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하이브리드 모델을 함께 출시할 계획.

<https://bit.ly/3f18FYK>

### 현대모비스 "미래차 경쟁력 강화"...글로벌 특허 확보전 (e대한경제)

오는 2025년까지 현대 대비 3배 수준인 1만2,000여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 미래차 산업에서 원천 특허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학 협력기관이 보유한 외부기술도 매입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전략.

<https://bit.ly/2RC0Yam>

### 유럽 전격하는 중국 전기차... '중국 차' 이미지 통합할까 (조선비즈)

그동안 중국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존재감이 없었으나, 니오/Xpeng/Aiways 등 전기차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를 극복하고 입지 확보에 성공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는 중.

<https://bit.ly/3vSKnh9>

### 현대차그룹, 공격적 지분투자로 미래차 우군 확장 (뉴스웨이)

미래차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현대차의 과감한 투자행보가 주목받는 중. 모셔널·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비롯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며 그림·아이라이프 등의 나스닥 상장사로 평가이익 역시 얻을 전망.

<https://bit.ly/3f9CzAQ>

###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건물에 공급한다...현대차·제주도 맞손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 현대캐피탈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도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MOU'를 체결함.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는 'V2B(Vehicle To Building)'를 실증해 향후 V2G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함.

<https://bit.ly/3uLjyzm>

### VW says it can profitably sell a self-driving system for €7 an hour (Teslatrati)

VW는 자사의 자율주행시스템 판매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으며, 시간당 7유로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올해 말에 제공 될 기능인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주문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언급함.

<https://bit.ly/3beiMze>

### "도요타자동차, 내년도 생산 계획 첫 1천만대 돌파" (연합뉴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수요 회복과 반도체 조달 정상화로 인해 2022회계연도의 글로벌 생산량을 1,040만대로 계획함. 이는 올해 계획(950만대)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며, 일본내 330만대, 일본 외 지역에서 나머지를 생산할 계획.

<https://bit.ly/3uyIqPL>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